

건강 칼럼

임플란트 돈 아끼고 오래 쓰는 방법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치아 마모나 상실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 탈 없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연치아: 최대한 오래 쓰기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자연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 병은 치아를 받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양치를 할 때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충치와 잇몸병 예방효과가 크다. 이미 생긴 플라그와 치석은 양치로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치과 스케일링으로 제거해야 한다. 스케일링은 원래 7~8만원짜리 고가의 치료이지만, 잇몸질환 예방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만 19세부터 연 1회 2만원 이내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가격의 30%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오민석
선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면제된다. 단,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며 자연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임플란트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만 65세가 넘어야 하며 자연치아가 최소 1개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실속있는 임플란트틀니

만약 자연치아가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은 고령의 환자라면 가성비가 좋은 임플란트 틀니를 추천한다. 일반적인 틀니는 잇몸 뼈에 끼우는 형태라 고정력이 약하고 식사를 할 때도 불편하며 잇몸 통증도 동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좋은 대안이 임플란트 틀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을 모아 가성비가 좋다. 잇몸에 임플란트를 조금만 식립하고 임플란트에 틀니를 고

정하는 치료방법이다. 상악과 하악에 각각 2~4개의 임플란트만 식립 후 바 형태의 특수장치를 연결하여 그에 맞는 틀니를 제작하고 틀니를 특수 장치에 끼워서 사용한다.

임플란트 틀니는 고정력이 뛰어나 치료 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유지력 또한 우수하다. 비용 역시 전체 임플란트에 비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그 뿐만 아니라 잇몸뼈가 부족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플란트 틀니는 가능하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써도 심는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오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턱뼈다. 임플란트 나사(Fixture)가 흔들리거나 빠지지는

않도록 턱뼈의 양이 충분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뼈이식을 진행하며, 이때 받치한 본인의 치아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만들어 사용하면 인체 거부반응이 없고 감염 위험이 낮으며 회복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또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위치에 적절한 임플란트가 식립돼야 하고, 집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경우 잇몸이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

△임플란트를 지키는 생활습관
치실과 치간칫솔을 양치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구조상 자연치아보다 음식물이 쉽게 낀다. 임플란트 주변 음식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하고 잇몸뼈가 녹는 현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경수 식사를 할 때 질긴 음식도 피하면 좋다. 강한 힘을 자주 받다 보면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휘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는 위아래로 씹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가해지는 힘에는 약하다. 질긴 음식을 피하고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뜨거운 국물도 구강 내 보철물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 밥을 국물에 말아먹기보다는 밥에 건더기를 얹어먹는 습관이 좋다.

사설

투자 리딩방 일당 적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가 여전히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사기 범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돈만 받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투자금 규모가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어느 사기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다.

투자 리딩방에 참여해 해외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최대 30%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였다. 원금 보장까지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입금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돈을 넣자마자 이제 5%로 준다고 해서 아니 왜 얘기가 달라지냐... 2~3억을 넣어야 자기 체면도 서서 20~30%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1억원밖에 안 넣어서(라고)."라고 말했다.

결국,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그대로 잔적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자금 세탁이니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냐...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차단 시켜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라고 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은 투자금을 다른 대포통장 등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오간 투자금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사기 및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 위메프 자율구조조정

정산 지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일단 회사와 채권단의 자율 구조 조정을 승인했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을 더한 액수는 최소 8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업 회생과 자율구조조정(ARS) 지원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는 회사를 살리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티몬 측은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다. ARS(자율구조조정), 회생 신청을 통해서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 측은 "한 달에 5백만 명 이상이 구매하는 플랫폼, 충성도에 대해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했다.

부채 현황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 법원은 두 기업의 '자율구조조정' 신청을 승인했다. 자율구조조정이란 기업과 채권자협의회가 채무 조정과

외부 자금 유치, 인수 합병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일단 한 달 동안 보류됐다. 다만, 채권금 기준 3분의 2가 반대하면 자율구조조정은 중단된다. 법원에 접수된 채권자는 티몬이 4만 7천 명, 위메프가 6만 3천 명이다.

채권자 수가 많아 자율구조조정 기간이 걸릴 거리는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확정된 미정산액이 2,700억 원으로 6일 만에 6백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8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는 등 5천6백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투우를 축복하지 마세요"



7일(현지시간) 버티칸 바티코 6세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요 일반 알현이 열린 가운데 "투우를 축복하지 마라"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활동가들이 "투우는 죄"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올림픽 신기록의 사나이 콜 호커



콜 호커(미국)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1500m 결선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호커는 3분27초65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아코브 잉게브리그스텐(노르웨이)가 2020년 세운 3분28초32 기록도 갈아치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